
K I E T 경제·산업동향

2014. 12.

산 업 연 구 원
산업·통상분석실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1. 한국 제조업의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방향	16
2. 러시아 모라토리엄 발생시 국내경제 파급 영향	20

< 요약 >

□ 해외경제 : 미국 제외한 여타국 경제지표 정체 내지 부진

- 미국은 11월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고용지표 개선 지속 등에 힘입어 선행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우호적인 경기 여건 시사
- 일본은 10월중 생산 정체와 소비 감소 등 실물경기 여건이 부진한 실정이며, 유로권도 역내 생산 및 소비가 10월에 전달 수준에서 정체 양상
- 중국은 11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전달 증가율 수준에 그친 가운데 수출이 한 자릿수 증가율로 급락하면서 내·외수 여건이 불안정
- 최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들의 호전에 따른 조기 금리 인상 전망과 그리스 재정 불안 및 러시아 디폴트 우려 등으로 미 달러화는 강보합세
- 유가는 추가 하락이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나, OPEC 회원국들의 감산 불가 의사 표명과 IEA 등 전문기관들의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으로 약보합

□ 실물경기 : 10월 전산업 생산지수 전월비 0.3% 증가

- 10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0.3% 증가, 전년동월비로는 0.1% 증가
 - 광공업 생산은 전월비 1.6% 감소, 내수소비재 출하는 3.9% 감소, 설비투자 4.9% 감소, 건설기성은 0.2% 증가

□ 금융 : 11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규모 축소, 12월 중순(12.15~12.19) 국고채금리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 11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의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대기업대출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전월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들의 네고물량 출회 영향으로 하락

□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3.4%, 전월비 1.8% 각각 감소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2.6%, 전월비 0.8% 각각 증가

○ 제조업생산(109.4)은 기계장비, 석유정제, 1차금속 등에서 증가였으나,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반도체 및 부품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비 3.4%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 중공업, 경공업 모두 감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에 비해 1.6%p 하락

○ 서비스업생산(110.5)은 도소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부동산·임대, 운수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2.6%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3.0% 감소

□ 고용 :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43.8만명(1.7%) 증가

○ 11월 취업자 수는 건설업 부문의 증가 규모 확대와 농림어업의 감소 규모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1.7% 증가

□ 11월 수출입, 동반 감소 속에 무역흑자 추세는 지속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1% 감소한 469억 달러, 수입은 4.0% 감소한 41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업종별로는 반도체·철강·일반기계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가 애플 및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석유제품과 석유화학도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

1. 해외경제

□ 미국 : 11월 생산·소비 확대,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돌입에 ‘인내’

○ 11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증가세가 전달에 비해 다소 확대된 반면, 체감지표들의 전월비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개선 지속 등에 힘입어 선행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우호적인 경기 여건 시사

- 산업생산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으로 구성되는 소비재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1.3% 증가(2010년 4월 이후 최대 폭)하고, 소매판매도 자동차, 의류, 건축자재 등의 판매 호조에 따라 전월비 0.7% 증가
- 경제주체별 체감경기에 있어서는 ISM 제조업지수가 58.7을 기록하여 전달보다 소폭 하락하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미래 기대지수가 비교적 크게 떨어진 영향(10월 93.8 → 11월 87)으로 전달보다 낮은 88.7 기록
-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한 5.8% 수준이나 제조업 부문의 고용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전월비 0.6% 상승)
- 미 연준은 12월 FOMC 결과 통화정책 기조의 정상화 여부와 관련해서 ‘인내’(patient)라는 표현을 들어 금리 인상 및 속도에 신중한 입장 반영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2	-2.1 (1.9)	4.6 (2.6)	5.0 (2.7)					
산업생산 (IT 생산)	2.9 (9.6)	1.0 (0.6)	1.4 (4.1)	1.0 (0.5)	0.3 (-0.5)	-0.1 (0.1)	0.9 (0.2)	0.1 (0.8)	1.3 (1.1)
내구재수주	5.2	-1.4	4.5	8.8	22.5	-18.3	-0.9	0.4	-
소매판매	4.2	0.2	2.3	1.1	0.3	0.6	-0.1	0.5	0.7
소비자물가	1.5	0.5	0.7	0.3	0.1	-0.2	0.1	0.0	-0.3
실업률(%)	7.4	6.7	6.2	6.1	6.2	6.1	5.9	5.8	5.8
무역수지(10억US)	-476.4	-124.5	-131.2	-124.3	-40.7	-40.0	-43.6	-43.4	-
ISM 제조업지수 ¹⁾	53.9	52.7	55.2	57.6	57.1	59.0	56.6	59.0	58.7
소비자 신뢰지수 ²⁾	73.2	80.5	83.4	90.9	90.3	93.4	89.0	94.1	88.7
경기선행지수 ³⁾	96.6	100.0	101.8	103.8	103.5	103.5	104.3	104.9	105.5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04년=100

□ 일본 : 10월 생산 정체&소비 감소, 아베노믹스 추진 가속화 전망

- 10월중 생산이 전월비 정체 양상을 보인 가운데 수주와 소비가 재차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4분기 초 실물경기 여건의 부진한 상황을 반영. 일본 정부가 현 경기에 대하여 완만한 회복 속에서 소비 부진을 우려하는 가운데 아베 정부의 중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노믹스 추진의 가속화가 예상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1.6	1.4	-1.7	-0.5					
광공업생산	-0.6	3.0	-3.8	-1.9	-3.4	0.4	-1.9	2.9	0.4
민간기계수주	5.7	4.2	-10.4	5.6	8.8	3.5	4.7	2.9	-6.4
소매판매	1.2	3.9	-7.0	3.5	0.5	-0.5	1.9	2.8	-1.4
소비자물가	0.4	0.0	2.5	0.3	-0.1	0.0	0.2	0.3	-0.3
실업률(%)	4.0	3.6	3.6	3.6	3.7	3.8	3.5	3.6	3.5
무역수지(10억엔)	-11,468	-5,051	-2,554	-2,878	-829	-965	-953	-964	-737
경기선행지수 ¹⁾	108.3	109.5	105.1	105.7	104.9	105.8	105.0	106.2	104.5

자료 :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 1) 2010년=100

□ 중국 : 11월 내·외수 지표 불안정, 2015년 성장률 6.8~7.2% 전망

- 11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전달의 증가율 수준에 그친 가운데 수출이 재차 한 자릿수 증가율로 급락하면서 내·외수 여건의 불안정성을 반영.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도 중국의 성장률을 6.8~7.2% 예상, 하방 위험 요인들로서 부동산 경기와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등을 우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GDP)	7.7	7.4	7.5	7.3					
산업생산	9.7	8.7	8.9	8.0	9.0	6.9	8.0	7.7	7.2
고정투자(누계기준)	19.6	17.8	17.3	16.1	17.0	16.5	16.1	15.9	15.8
소매판매	13.1	11.9	12.3	11.9	12.2	11.9	11.6	11.5	11.7
소비자물가	2.6	2.3	2.2	2.0	2.3	2.0	1.6	1.6	1.4
수출	8.7	-4.7	5.0	13.1	14.5	9.4	15.3	11.6	4.7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권 : 10월 실물지표 정체, 연초 유럽중앙은행 추가 부양 예상

- 역내 생산 및 소비가 10월중 전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사실상 제로 수준에 머무는 등 실물경기 여건의 부진이 지속. 전문가들은 2015년 초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부양 가능성을 예상

유로권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0.4	0.3	0.1	0.2					
산업생산	-0.7	0.2	0.0	-0.5	-0.4	0.7	-1.1	0.5	0.1
소매판매	-0.8	0.6	0.4	0.1	0.4	-0.4	0.9	-1.2	0.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0.7	0.6	0.4	0.5	0.4	0.4	0.3	0.4
무역수지(10억 유로)	153.5	42.6	43.0	45.9	13.2	12.8	15.4	17.7	17.7
경기체감지수 ¹⁾	93.8	101.6	102.2	100.9	102.1	102.2	100.6	99.9	100.7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미 달러화 강보합 & 유가 약보합

- 최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들의 호전에 따른 조기 금리 인상 전망과 그리스 재정 불안 및 러시아 디폴트 우려 등으로 미 달러화는 강보합세. 엔/달러와 달러/유로는 각각 120엔대, 1.22달러대에서 다소 제한적 움직임
- 유가는 단기 급락에 따른 경계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가 하락이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나, 사우디 등 OPEC 회원국들의 감산 불가 의사 표명과 IEA 등 전문기관들의 내년도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으로 약보합 움직임

주요 국제가격 변수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14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26일
엔/달러	103.23	102.24	101.77	101.33	102.80	104.09	109.65	112.32	118.63	120.31
달러/유로	1.3769	1.3867	1.3635	1.3692	1.3390	1.3132	1.2631	1.2525	1.2452	1.2183
미 국채 (10년만기)	2.72	2.65	2.48	2.53	2.56	2.34	2.49	2.34	2.16	2.25
WTI유	101.6	99.7	102.7	105.4	98.2	96.0	91.2	80.5	66.2	54.7
두바이유	104.6	104.9	106.4	109.0	104.4	101.1	95.5	83.2	67.9	57.0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실물경기 : 10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2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 10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에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비 0.3% 증가, 전년동월비로는 0.1% 증가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5.3%)와 화학(0.4%)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기장비(-6.4%), 1차금속(-3.1%), 석유정제(-2.6%) 등의 부진으로 전월비 1.6% 감소, 전년동월비로는 3.2% 감소
- 내수소비재 출하는 내구재 출하 감소로 전월비 3.9% 감소(전년동월비 4.6% 감소), 소매판매액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증가하였으나,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판매 감소로 전월비 0.4%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부문 모두 부진하여 전월비 4.9% 감소(전년동월비 9.6%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비 0.2% 증가(전년동월비 5.7% 감소)

실물경제 주요 지표

(전년동기비, %)

	2013	2014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3.0*	3.9* (0.9)*	3.5* (0.5)*	3.2* (0.9)*	-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0*	2.5* (0.2)*	1.5* (-0.3)*	1.5* (1.0)*	-	-	-	-	-
내수소비재 출하	-0.6	-2.3 (1.2)	1.5 (0.8)	-0.2* (-0.1)*	2.2 (3.0)	1.0 (-1.2)	-4.0 (-1.9)	2.3* (-0.1)*	-4.6* (-3.9)*
설비투자(국민계정)	-1.5*	7.3* (-1.9)*	7.7* (1.1)*	4.3* (-0.5)*	-	-	-	-	-
설비투자 추계	-1.3	5.9 (-5.2)	6.2 (2.1)	1.4* (-1.0)*	2.4 (-1.3)	3.1 (3.6)	-9.9 (-11.4)	11.3* (12.5)*	-9.6* (-4.9)*
건설투자(국민계정)	6.7*	4.3* (5.1)*	0.2* (0.4)*	2.6* (2.5)*	-	-	-	-	-
건설기성액	10.1	6.5 (1.5)	0.1* (0.2)*	-1.9* (-3.2)*	-1.5 (2.7)	-0.9* (-1.6)*	-0.8* (0.6)*	-3.9* (-5.8)*	-5.7* (0.2)*
전산업생산지수	1.6	1.7 (0.6)	0.8* (-0.5)*	1.7* (0.6)*	1.7 (2.3)	2.7* (0.3)*	0.5* (-0.6)*	2.0* (-0.8)*	0.1* (0.3)*
광공업생산지수	0.3	0.7 (0.3)	0.3 (-0.9)	1.1* (-0.2)*	0.5 (2.7)	4.0 (1.6)	-2.8 (-3.8)	1.9* (0.0)*	-3.2* (-1.6)*
광공업출하지수	0.4	0.2	-0.2	0.2*	-0.7	2.2	-3.2	1.8*	-3.2*
광공업재고지수	5.0	5.7	7.7	3.3*	7.7	7.1	5.3	3.4*	3.2*
제조업 평균가동률	76.2	77.2	76.3	75.8*	76.4	78.2	74.0	75.1*	73.5*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주 :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을 나타내며, 제조업 가동률은 당기수치,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비자물가 : 11월중 전월비 0.2% 하락, 전년동월비 1.0% 상승

○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2.6%)과 석유류(-2.7%) 가격의 안정으로 전월비 0.2% 하락

□ 실업률 : 11월 계절조정 실업률 3.4%

○ 11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4%p 상승한 3.4%를 기록

-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11.8만명 증가한 81.8만명을 기록

- 고용률은 전년동월비 0.4%p 상승한 60.8%를 기록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비 0.6%p 상승한 62.7%를 기록

물가 및 고용

(%)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1.3	0.9	0.3	0.2	-0.1	0.1	0.2	-0.1	-0.3	-0.2	
(전년동기비)	1.3	1.1	1.6	1.4	1.7	1.6	1.4	1.1	1.2	1.0	
실업률	3.1	3.5	3.7	3.5	3.6	3.4	3.5	3.5	3.5	3.4	

자료 : 통계청

주 : 실업률은 계절조정치

3. 국내금융

□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 11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규모 축소

- 11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은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대기업대출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증가 규모 축소
(10월 7.2조원 → 11월 4.1조원, 대기업 -0.8조원, 중소기업 4.9조원)
 - 중소기업대출은 연말 실적 평가를 앞둔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기술신용대출 확대, 특이요인(월말 휴일에 따른 결제성자금 대출상환 지연)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
 - 대기업대출은 전월 특이요인(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일부 기업의 일시적 운전자금 수요,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소멸, 일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출금 상환 등으로 감소로 전환
- CP는 일부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소폭 순발행 전환
(10월 -0.2조원→11.1~20일 0.3조원)
-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가 확대된 반면 일부 기업의 부채 감축을 위한 상환 등으로 신규 발행이 줄어들어 따라 순발행 규모 축소
(10월 1.9조원→11월 0.3조원)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일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업 공개 및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큰 폭 증가 (10월 0.2조원→11월 2.5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2012		2013		2014			14.11월말 잔액	
	연중	11월	연중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 은행 원화대출	32.9	2.4	34.8	5.8	54.1	3.5	7.2	4.1	677.8
(대 기업)	27.1	0.7	8.2	1.5	16.4	0.5	2.7	-0.8	166.8
(중소기업)	5.8	1.7	26.6	4.3	37.7	3.0	4.5	4.9	511.0
<개인사업자>	15.0	1.4	17.1	1.8	17.4	1.6	2.0	2.2	207.9
■ 사모사채 인수	-2.4	-0.3	-2.1	-0.2	-0.9	-0.1	-0.2	0.2	6.0
■ 회사채 순발행	17.5	1.6	3.1	0.2	1.9	-0.6	1.9	0.3	..
■ CP 순발행	5.4	1.0	1.0	-3.8	-1.2	-1.0	-0.2	0.3	26.5
■ 주식발행	2.8	0.4	6.5	0.6	7.0	0.2	0.2	2.5	..

자료 : 한국은행

○ 11월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전월 수준의 높은 증가세 지속 (10월 6.9조원→11월 6.9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LTV·DTI 규제완화 효과, 대출금리 하락, 주택거래 호조 등으로 전월에 이어 큰 폭 증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10월 6.0조원→11월 5.9조원)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전월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
(10월 0.9조원→11월 1.0조원)

은행 가계대출 추이

(조원)

	2012		2013		2014			14.11월말 잔액	
	연중	11월	연중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은행 가계대출	20.9	4.1	23.3	2.8	30.7	3.7	6.9	6.9	554.3
[모기지론양도 제외시]	11.5	1.1	13.9	3.1	33.2	4.3	6.4	6.0	513.7
■주택담보대출	20.3	2.8	20.7	1.9	29.3	3.5	6.0	5.9	400.7
[모기지론양도 제외시]	10.9	-0.2	11.3	2.1	31.9	4.1	5.5	5.0	360.1
■마이너스통장대출등	0.7	1.3	2.8	0.9	1.4	0.2	0.9	1.0	152.8

자료 : 한국은행

□ 금리 및 환율 : 12월 중순(12.15~12.19) 금리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12.15일 2.12%→12.19일 2.18%, 0.06%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의 네고물량이 출회되는 등의 영향으로 하락 (12.15일 1,103.1원→12.19일 1,102.0원, 1.1원 하락)

주요 금리 및 환율 추이

(단위 : %,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Q	2Q	3Q	4Q	11월	12.19
국고채(3년)	3.34	2.82	2.52	2.88	2.82	2.86	2.07	2.18
회사채(3년,AA-)	4.21	3.29	2.88	3.31	3.24	3.29	2.39	2.49
CD(91일)	3.55	2.89	2.81	2.69	2.66	2.66	2.13	2.13
CP(91일)	3.71	3.00	2.86	2.76	2.73	2.90	2.24	2.34
원/달러	1,151.80	1,070.60	1,111.10	1,142.00	1,074.70	1,055.40	1,107.9	1,102.0
원/100엔	1,485.16	1,247.50	1,180.13	1,167.15	1,098.67	1,004.66	933.9	927.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 기말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3.4%, 전월비는 1.8% 각각 감소

○ 제조업생산(109.4)은 기계장비(4.4%), 석유정제(5.8%), 1차금속(2.8%) 등에서 증가였으나, 자동차(-10.5%), 영상음향통신(-17.0%), 반도체 및 부품(-4.1%)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비 3.4%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6.5%), 중공업(-3.3%), 경공업(-4.5%) 모두 감소

- 전월비 생산이 증가한 업종은 자동차(5.3%), 화학제품(0.4%), 음료(1.7%) 등이었으나, 반도체 및 부품(-2.5%), 전기장비(-6.4%), 1차금속(-3.1%) 등이 감소하여 전월비 1.8%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10.7)는 컴퓨터, 기타제품, 자동차, 전기장비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석유정제, 1차금속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1.5%, 전월비 0.1% 각각 증가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6.1%로 전월에 비해 2.2%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에서는 출하 증가율(0.4% → -3.1%)이 감소하였으며, 재고의 증가폭(3.7% → 3.2%)이 축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에 비해 1.6%p 하락

□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2.6%, 전월비 0.8% 각각 증가

○ 서비스업생산(110.5)은 도소매(-1.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0.7%)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7.8%), 보건·사회복지(6.0%), 부동산·임대(8.5%), 운수(3.8%)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2.6% 증가

- 전월비로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9%), 예술·스포츠·여가(-5.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전문·과학·기술(7.8%), 금융·보험(2.0%), 교육(2.0%) 등이 증가하여 0.8%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3.0% 감소

산업활동 추이

(2010=100, 전년동기비 %)

	2012	2013	2014		2014		
			2/4	3/4*	8월	9월*	10월*
광 공 업	107.4	107.7	109.2	105.0	100.6	102.6	109.1
증 감 률	1.3	0.3	0.3	1.1	-2.8	1.9	-3.2
S.A.전월(기)비	-	-	-0.9	-0.2	-3.8	0.0	-1.6
제 조 업	107.5	107.8	109.6	105.3	100.7	103.0	109.4
증 감 률	1.4	0.3	0.3	1.2	-2.7	2.0	-3.4
섬 유	-2.4	-1.7	-0.8	1.0	-2.0	1.4	-5.9
화 학	3.8	3.7	1.3	0.5	-0.1	2.2	2.7
철 강	1.0	-0.6	4.2	7.5	5.4	10.2	3.9
반도체	8.1	10.1	11.0	6.0	10.7	-5.0	2.9
컴퓨터,주변장치	-16.9	-16.6	4.0	20.0	12.6	27.4	1.2
통신, 방송장비	-3.7	-6.1	-11.5	-8.3	-12.4	-4.3	-20.1
의료, 정밀, 광학	5.7	10.7	-16.6	-11.5	-15.4	-11.5	-16.5
기계, 장비	-2.1	-4.5	-1.8	2.1	-1.6	7.6	4.4
자동차	-0.2	1.2	3.6	2.0	-15.0	0.6	-10.5
조 선	4.9	-7.3	-16.2	-9.6	-14.2	-9.7	-9.8
S.A.전월(기)비	-	-	-1.1	-0.2	-3.8	-0.2	-1.8
중 공 업	1.6	0.4	0.1	1.2	-2.7	1.8	-3.3
경 공 업	0.1	-0.1	0.9	0.9	-2.8	2.6	-4.5
제조업ICT	2.4	3.3	0.8	-1.4	-1.6	-3.4	-6.5
서 비 스 업	104.8	106.3	108.2	108.3	107.8	108.7	110.5
총지수	1.6	1.4	1.4	2.6	2.1	3.0	2.6
하수,폐기물처리	-0.6	-0.4	-0.3	1.7	-1.1	3.4	2.2
도매 및 소매	0.8	-0.2	-0.2	0.1	0.1	0.2	-1.7
운수	1.2	1.1	0.0	2.6	0.5	3.5	3.8
숙박 및 음식점	-1.2	0.4	-2.0	1.2	0.1	2.5	1.4
출판,영상,방송	3.0	1.9	3.1	2.7	2.0	4.2	-0.7
금융 및 보험	2.8	0.5	3.5	6.4	7.1	5.7	7.8
부동산 및 임대	-4.8	2.5	4.2	6.0	4.1	8.6	8.5
전문, 과학 및 기술	3.7	3.3	0.9	1.5	-1.5	3.2	4.3
사업시설관리지원	3.5	2.2	3.0	2.1	2.3	1.1	2.4
교육	0.9	0.8	0.6	1.1	1.1	1.3	1.5
보건 및 사회복지	6.7	5.0	6.2	5.7	5.8	6.1	6.0
예술,스포츠,여가	2.8	-0.5	-4.7	2.0	-1.9	3.6	1.5
협회,수리,기타개인	-1.4	5.3	-0.3	-0.2	0.2	-1.6	0.5
S.A. 전기비	-	-	0.0	1.2	0.4	0.2	0.8
ICT서비스업	3.9	1.6	2.3	0.8	-2.0	5.1	-3.0

자료 : 통계청
 주 : *은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43.8만명(1.7%) 증가

○ 11월 취업자 수는 건설업 부분의 증가 규모 확대와 농림어업의 감소 규모 축소 등으로 소폭 증가

- 제조업 부분의 취업자는 증가폭이 3개월 연속 축소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전년동월비 3.7% 증가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부문 취업자는 운수업과 금융보험업의 부진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비 1.2% 감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분의 취업자는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분의 고용 증가로 인해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1.9% 증가

취업자 추이

(천명, 전년동기비, %)

	2013		2014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산업	25,066	25,346	24,913	25,790	25,927	25,979	25,885	25,917	25,951	25,968
전년동기대비	1.6	2.2	3.0	1.8	2.0	2.0	2.3	1.8	1.6	1.7
농림어업	-0.5	-1.0	1.0	-3.2	-7.0	-6.4	-7.3	-7.4	-8.3	-5.4
제조업	1.9	1.2	3.0	3.3	4.7	4.6	5.3	4.1	3.2	2.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2.6	3.2	2.0	2.3	2.2	2.6	2.1	2.1	2.2
건설업	-1.1	-0.5	1.6	0.6	3.2	3.2	3.7	2.8	2.6	4.7
도소매음식숙박업	0.6	2.6	5.5	3.8	4.9	4.9	5.0	4.8	4.9	3.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7	3.6	2.4	1.9	2.1	1.9	2.7	1.6	1.4	1.9
전가운수통신금융	2.1	1.9	1.9	-0.5	-2.5	-2.4	-2.9	-2.0	-1.2	-1.2
실업률(계절조정, %)	3.1	3.0	3.5	3.7	3.5	3.4	3.5	3.5	3.5	3.4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1월 수출입, 동반 감소 속에 무역흑자 추세는 지속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1% 감소한 469억 달러, 수입은 4.0% 감소한 41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수출은 대미 수출의 호조와 반도체, 철강, 일반기계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1일)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일평균 수출이 전년 동월비 증가하여 호조세는 지속
- 수입은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8.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9.3%나 하락함에 따라 도입물량이 7.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는 13.6%가 감소한 72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3		2014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1~11월
수출	5,596 (2.1)	1,464 (4.7)	1,376 (1.7)	1,457 (3.2)	1,419 (3.7)	475 (6.3)	514 (1.9)	469 (-2.1)	5,234 (2.3)
수입	5,156 (-0.8)	1,331 (2.5)	1,323 (2.0)	1,308 (3.2)	1,330 (5.6)	442 (7.7)	442 (-3.0)	414 (-4.0)	4,817 (2.2)
무역수지	440	133	52	149	91	32	72	55	41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1)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반도체·철강·일반기계·컴퓨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

○ **반도체** : Windows XP 서비스 종료에 따른 기업PC 및 데이터센터 서버용 메모리 수출 증가와 애플 아이폰6 판매 호조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수출

증가로 두자릿 수의 증가세 지속

- 자동차 : 작년 11월 수출호조(연중 월간 두 번째)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
- 자동차부품 : EU, 일본, CIS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
- 조선 :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과 FPSS 등 해양플랜트 수출이 감소
- 디스플레이 :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라 OLED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
- 무선통신기기 : 애플의 아이폰6 출시, 중국기업의 저가 공세 등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철강 : 미국 자동차·에너지산업의 호조세로 주력 품목인 강관, 열연강판, 중후판의 대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
- 섬유 : 베트남의 섬유소재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자급률 향상과 저성장으로 중국의 섬유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전체 수출은 감소
- 석유제품 : 셰일오일 개발에 따른 경질유(항공유 등) 수출의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일반기계 : 기초산업기계(원동기, 펌프), 산업기계(건설·금속공작용), 금형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 증가
- 석유화학 : 설비 정기 보수 영향으로 수출여력이 줄어든데다, 원유가 급락에 따른 제품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
- 가전 : 초고화질(UHD) TV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조명기기(중국업체의 저가 LED 조명 공급 확대) 등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
- 컴퓨터 : 반도체 저장매체(SSD)의 수출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고화질 모니터의 B2B 시장 확대로 수출이 증가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2013		2014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1~11월
자동차	3.0	11.4	5.4	2.3	2.8	7.0	-15.0	-6.7	0.5
자동차부품	6.0	10.7	2.0	6.8	2.5	-1.1	1.0	-6.8	2.5
조선	-6.5	25.5	-5.0	15.6	5.3	23.8	34.4	-3.0	7.8
일반기계	-3.1	-2.8	0.4	0.7	9.0	15.7	5.4	6.3	3.7
철강	-12.1	-9.4	2.9	11.1	17.8	24.1	6.8	8.6	9.5
석유화학	5.4	4.1	-4.6	1.9	5.0	5.9	5.9	-4.6	0.7
석유제품	-5.9	-10.2	-7.5	4.3	3.8	-4.7	2.7	-22.6	-2.4
섬유	2.3	7.9	2.1	0.2	1.1	5.2	0.4	-9.8	0.0
가전	17.8	26.5	10.3	8.1	-8.8	-12.3	-7.8	-12.6	-0.1
무선통신기기	21.2	13.9	22.8	4.7	7.8	-3.8	-15.4	-4.4	6.1
컴퓨터	-8.3	-12.6	-6.7	-7.5	-2.8	13.1	10.2	8.7	-3.0
반도체	13.3	14.2	14.6	7.0	4.5	7.4	11.5	15.9	9.4
디스플레이	-7.8	-16.0	-13.0	-4.1	-4.1	7.7	-5.1	-2.4	-4.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한국 제조업의 위협요인 분석 및 대응방향
----	------------------------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2014.12.17.)

- 제조업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정부 등에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요구

□ 한국 제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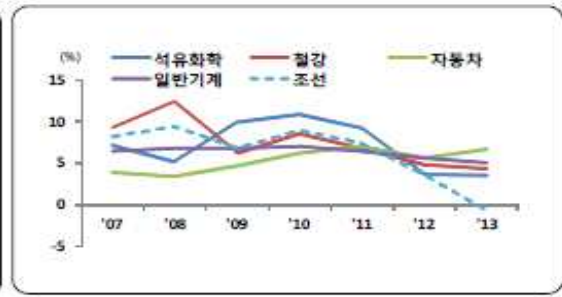
- 최근 제조업은 국내외 여건으로 인하여 수출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짐.

<그림 1> 국내 주력 제조업의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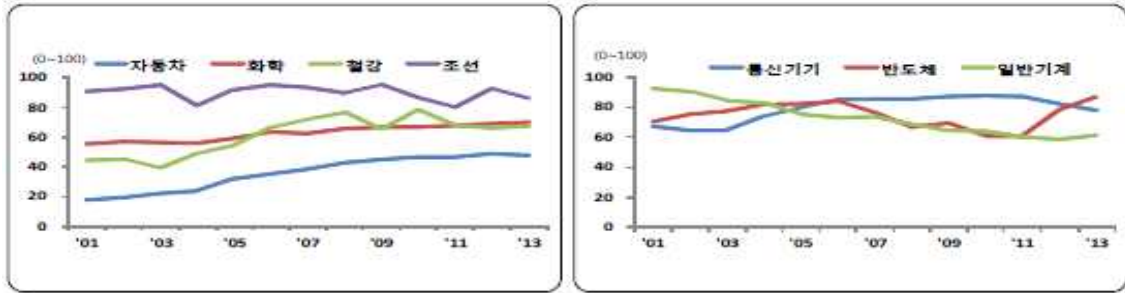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한국 제조업의 위협요인 분석

- [세계경기 둔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 둔화로 해외수요의 부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내수는 더욱 부진하여 수출의 둔화세를 보완하는데 애로
- [중국 추격] 중국 제조업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고 수출 상품구조는 중간재 중심으로 재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와의 수출 경합이 늘어남.
 - 2000년 이후 일반기계를 제외한 주력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가 상승 추세에 있으며 특히 조선 부문의 수출 경합도는 90 전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철강, 화학 부문은 최근 빠른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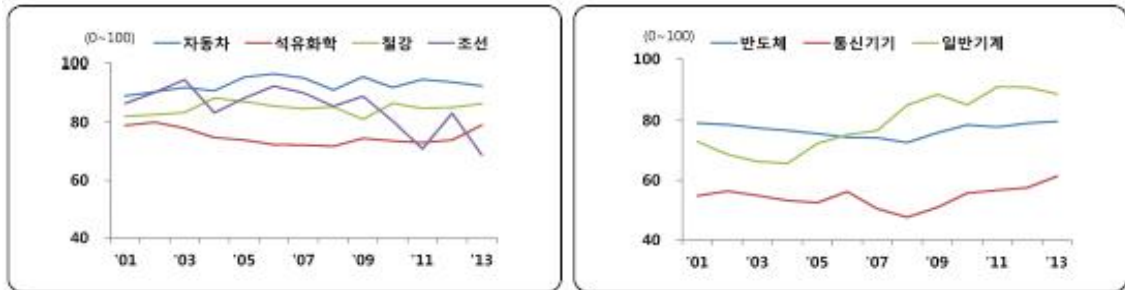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산업의 한·중 수출 경합도¹⁾ 추이



○ [엔화 약세] 최근 일본 수출은 엔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선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

- 한·일 간 주요 산업의 수출 경합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일반기계 등의 순으로 높은 경합도를 보임.

〈그림 4〉 주요 산업의 한·일 수출 경합도 추이



○ [국내의 설비과잉] 세계 경기회복 지연으로 일부 산업의 글로벌 설비 과잉이 지속

- 교역 부진으로 인하여 해운 및 조선 산업은 설비 과잉이 지속되고 있으며 철강과 석유화학은 세계 수요 둔화와 중국의 증설로 설비 과잉이 심화됨.

1) 수출경합도는 비교 대상국가의 수출상품구조에 있어서 유사성을 측정하여 경쟁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0~100의 값을 가지며 양국의 수출상품구성이 완전히 같으면 100이 되고 수출상품구성이 완전히 다르다면 0임.

<그림 5> 석유화학 세계 설비과잉 추이



<그림 6> 해운 선복량 과잉 및 조선 가동률 추이



○ [셰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 셰일가스의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

- 국내산업 중에서 에너지 및 조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정유 및 신재생에너지부품 산업은 부정적일 가능성

<표 1> 셰일가스 개발의 국내 산업별 영향

	산업명	주요 요인
긍정적	에너지·발전	·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 · 발전단가 하락으로 발전사 수익성 개선
	조선	· LNG 및 LPG선 발주 증가 · LNG 및 LPG선이 국내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이며 해양플랜트 수주는 감소
중립적	플랜트	· 천연가스 관련 플랜트 발주 증가 · 국내업체 기술력 부족으로 수주 애로
	수처리	· 수압파쇄방식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수처리시장 확대 · 국내업체 기술력 부족으로 수주 애로
	강관	· 미국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수요 증가 ·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 내 신증설로 경쟁 심화
부정적	석유화학	· 미국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미국 내 신증설 확대 및 수출 증가 · 국내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익성 둔화 가능성
	정유	· WTI 가격이 타 유종 대비 낮아 미국 정유사들의 원가경쟁력 상승 · 미국의 수출 확대 등으로 경쟁 심화
	신재생 에너지부품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감소 · 미국의 투자 감소 등으로 수출시장 경쟁 심화

자료 : 산은조사월보(2014.8)

□ 한국 제조업의 대응 방향

< 기본 방향 >

- 실행력이 높은 장기전략 수립·추진
- 원천기술, 자본재부문 등 근원적 경쟁력 강화
- R&D 강화 및 인적자원 확보
- ICT융합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강화
- 고부가가치 및 Long Cycle 제품 위주로 사업구조 개선
- WTO협정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산업발전정책 추진

-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제조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가 긴급요
- 아직 선발국과 격차가 있는 가운데 중국이 급격히 추격하는 상황 등에 대응하여 기업 등의 전략 변화가 필요

부록	러시아 모라토리엄 발생시 국내경제 파급 영향
----	--------------------------

현대경제연구원(2014.12.11.)

□ 러시아의 금융 불안 고조

-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고,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러시아의 신용부도 위험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조

□ 러시아 모라토리엄 발생 가능성 진단

- **(재정수지)** 러시아 재정수입의 약 50%는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

- 2015년 연간 국제유가가 60달러로 하락시 러시아의 재정수지는 1,160억 달러(GDP 대비 $\Delta 5.5\%$), 30달러로 하락시 2,050억 달러(GDP 대비 $\Delta 9.8\%$) 악화

- **(무역수지)** 러시아 총수출은 원유 수출에 67%를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

- 2015년 연간 국제유가가 60달러로 하락시 러시아의 무역수지는 1,470억 달러, 30달러까지 하락하면 2,600억 달러 악화

- **(대외채무)** 러시아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제재로 외채상환 압력마저 가중

- 러시아가 2015년에 상환해야 할 대외 채무 규모는 총 1,583억 달러

- **(외국인자금 유출)** 금융불안 고조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어 유출 규모가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2015년에도 2014년과 동일한 속도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액은 약 2,12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

- **(외환보유고)**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향후 러시아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면 감속세가 지속될 전망
 - 러시아 외환보유고는 2013년 12월 말 5,165억 달러에서 2014년 11월말 4,189억달러로 1년 만에 약 1,000억 달러 가량이 급감
- **(종합 평가)** 2015년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능력은 취약하며, 향후 제2의 모라토리엄 발생 가능성이 상당
 - 2015년 경상거래, 대외채무, 외국인자금 유출 등 러시아의 외환위기 대응에 필요한 유동성 규모는 약 4,400억 달러로, 현재 외환보유액 4,189억달러보다 큼

□ **러시아 모라토리엄 발생 시 국내 파급 경로**

- **(실물부문)** 실물 부문에서는 유럽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로 유럽 경기가 부진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및 대유럽 수출이 감소
- **(금융부문)** 금융 부문에서는 신흥국에서 유출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원화가치는 강세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모라토리엄 발생 시 국내 파급 영향**

- 모라토리엄 발생시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2.9%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 및 대유럽 수출은 각각 57%,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유럽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겹칠 경우 200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예상
- 모라토리엄 발생시 우리나라 총수출이 2.9%p 감소하면, 외화가득률(약 52%)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0.6%p 하락 압력
-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

- 모라토리엄이 발생하면 외국인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가 예견되며 이로 인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면 엔저현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경쟁력은 더욱 약화

<표 1> 러시아 모라토리엄의 국내 파급 영향

총수출증가율 하락		경제성장률 하락
합계	△2.9%p	△0.6%p
대러시아수출	△1.1%p	
대유럽수출	(직접)△1.7%p	
	(간접)△0.1%p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 첫째, 러시아 및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둘째, 외국인자금 유입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
- 셋째, 원화 가치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비
- 넷째, 러시아 및 유럽에 대한 수출 부진에 대비한 시장다변화 및 대체 수출 시장 확보